

“코로나19 확산될라...” 동구, 방역고삐 바짝 조인다

확산방지 위한 방역활동 이행실태 등 현장점검 강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동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중집합장소와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동구는 먼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코로나19 현장방역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현장점검을 실시 중이다. 현장방역반은 무등산 주변 등산객을 대상으로 매주말 5인 이상 동행 금지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점검하고 일부 텀스크 착용자 계도와 마스크를 소지하지 않은 등산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는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콜라텍을 비롯해 운영시간 제한이 풀린 유흥시설, 식당·카페, 대학가 술집 등을 대상

으로 야간과 주중에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 중이다. 점검반은 출입자명부 관리, 출입자 증상확인 및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톨당 최대 4명 제한 준수, 테이블 간 이동금지, 1m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업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종교시설과 체육시설,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구는 관내 189개 종교시설에 대해 매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정구예매 시 좌석 수 30% 이내 제한, 타지역 교류 및 초행행사 금지, 성가대 활동 금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체육시설과 보육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2회 이상 발열체크, 소독·환기 등 위생점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유개형 버스승강장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자체 방역소독을 비롯해 관내 콜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에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정기적

으로 점검 중이다. 구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언제 어디서

전과가 이뤄질지 모르는 위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모두가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기만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청장 임택)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에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동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중집합장소와 방역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동구 제공

광산구 시민 1400명 면역력 무료 검사

전국 최초 첨단 기법 활용, 면역력 측정서비스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시민면역력 증진을 위해 시민 14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측정서비스를 본격 실시한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2단계에 걸쳐 시민 1400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시민면역력 측정서비스(NK세포활성도 검사)를 진행한다.

NK(Natural Killer)세포는 ‘자연살해세포’로 불린다. NK세포활성도를 검사해 개인 면역력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측정서비스의 핵심이다. 특히 검사는 소량의 혈액(1cc)검사만으로도 정확한 면역력 측정이 가능한 최첨단 검사기법을 활용한다.

광산구는 시민면역력 증진을 위해 지난 3월 2일 면역력측정 전문검사기관인 쉐엔케이맥스와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광산구는 관내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900여 명과 일반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2단계에 걸쳐 무료 면역력 검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6일 이틀에 광산구 송광종합사회복지관, 하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면역력 검사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각 복지관을 통해 광산구 걷기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47명이 검사에 참여했다. 이를 시작으로 광산구는 10월까지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9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NK세포활성도 무료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참여 중인 건강증진사업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단계로 5월부터 일반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형탁 기자

남구, 대촌동 농가에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

한전KPS, 상생협력 사업 후원금 1,000만원 기부 생명안전 지킴이 양성...자살 예방 등 안전망 구축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농촌지역에서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전KPS와 손잡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8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김병내 구청장과 이계성 한전KPS 재난안전실장, 반정환 남구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후원금 1,000만원 전달식이 열렸다.

그동안 남구는 생명존중 안심마

을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한전KPS를 비롯해 대촌동 행정복지센터, 남구 자원봉사센터,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남구와 한전KPS, 남구 자원봉사센터는 농촌마을인 대촌동 농가 30여세대에 안전 불감증 및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농약 안전보관함을 설치하기로 했다. 농촌지역에서 농약이 소중한 생명을 내던지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다. 농약 안전

보관함은 오는 5월까지 대촌동 농가에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생명안전 지킴이 활동도 펼쳐진다.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오는 5월부터 생명안전 지킴이를 양성해 농약 안전보관함이 보급된 농가를 수시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부 문기를 비롯해 생명존중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남구와 한전KPS는 오는 9월까지 생명존중 안심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유관기관 및 참여자와 함께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윤규진 기자

북구, 올해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실시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021년 민방위 교육을 스마트 민방위 교육(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4년차 이하 대원은 연중 4시간의 집합교육을 5년차 이상은 1시간의 온라인 교육 또는 비상소집훈련을 받아왔다. 올해는 북구가 주소지인 전체 민방위 대원이 온라인 교육 대상이다. 교육은 ▲4월 15일부터 7월 15일 ▲8월 1일부터 9월 15일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3회 걸쳐 진행된다.

스마트폰 또는 PC를 이용해 스마트 민방위 교육에 접속한 뒤 본인 인증을 거치면 24시간 언제든지 수강이 가능하다. /김경관 기자

금호1동, 보행약자와 함께 내딛는 힐링워킹 프로그램

광주 서구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성희)가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해 지난 7일부터 중앙공원 산책로에서 ‘보행약자와 함께 내딛는 힐링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참여대상자는 금호1동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올해 1월부터 통합돌봄사업을 위한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참여 가능한 인원을 선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주 1회(수요일), 상·하반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편안한 걷기를 위해 노르딕워킹을 위한 스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호1동장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즐거운 노년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